

# 아침 햇살

2017  
AUTUMN

- 한미특수교육센터 안내 2
- 로사 장 칼럼 Keep calm and carry on 3
-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4
- 양육 정보 ASD를 겪는 십대들을 위한 수면 전략 5-7
- 정보광장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용어 8-9
- 치료정보 조기 언어치료의 중요성 10-12
- 행사 리포트 San Diego 가족 여행 13-15
- 여행 후기 여행을 다녀와서 16-17
- KASEC Voice LACC 자선 음악회 18-19
- 이달의 후원자 20

# 한미특수교육센터 는 다음과 같은 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선기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수음악 프로그램

노래와 악기 등 음악적 요소를 이용해 행동과 정서상 문제 해결을 돕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폐증, ADHD, 유치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모니아 음악 프로그램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챔버앙상블과 핸드차임 앙상블을 통해 하모니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통합 농구교실

특수체육(APE) 교사와 농구 코치의 지도 하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구의 기본 기술을 배우고,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

아동이나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발음, 유창성, 표현 및 수용 언어, 인지, 리터러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며, 검사와 치료 모두 학생의 주 언어(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 가능합니다.

## ADHD/학습장애 상담

현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재직 중이신 Resource Specialist로부터 ADHD나 학습장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진단, 학교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SQ 발달 검사

Wang Globalnet Fund의 지원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발달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의사소통,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 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발달에 대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폐증/발달장애 진단

발달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소아 발달 전문의로부터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한 상담도 함께 제공합니다.

## 부모 교육 세미나/워크숍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세미나와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와 부모님의 스트레스 조절 방법, 효과적인 대화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LA & OC)

오렌지 카운티와 Wismettac Foundation의 기금 지원으로 오렌지 카운티와 엘에이 카운티에서 발달선별검사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8개의 발달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 자폐증이나 발달장애와 관련된 상담 뿐 아니라 학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그 밖에도

- 전문가를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숍과 심포지움 주최
- 특수학교와 장애 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 특수교육 관련 법률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정보 안내
- 마스크를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 주최
-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등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한미특수교육센터 (562) 926-2040

## Keep calm and carry on



어느 해 보다도 더웠던 이번 여름, 센터의 스텝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기획했던 7월의 “I’m here” 샌디에고 가족 여행 프로젝트와 8월에 있었던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첫 데뷔 무대였던 음악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의 여름은 어느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며 장애와 특수교육 분야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알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특수교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지난 20여 년 동안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의 치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형제자매의 어려움 역시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살게 하려면 온 가족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 나온 지적장애가 있는 형이 심한 자폐를 가진 동생이 죽는다면 엄마가 편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과 발달 장애 피아니스트인 은성호 씨의 다큐멘터리에 나온 장애를 가진 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평생 소외된 채 살아온 동생의 이야기를 보며 결국 장애란 한 자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평생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I’m here 프로젝트는 발달 장애에 대해 커뮤니티에 알리는 목적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이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내며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 전 9월 11일, 스쿨버스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Paul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스쿨버스 안전법으로 수많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삶을 선물하고 가기도 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Here and Now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 역시 삶의 한 과정이기에 나의 앞길 어디쯤엔가 놓여있는 죽음을 생각하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되다 때아닌 소나기가 오고 또 갑자기 선선해지는 요즘 날씨처럼 우리의 삶도 예측 불가능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이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는 가슴 아픈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워 하기 보다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남은 자의 의무이자 권리로 생각하며 묵묵히, 하지만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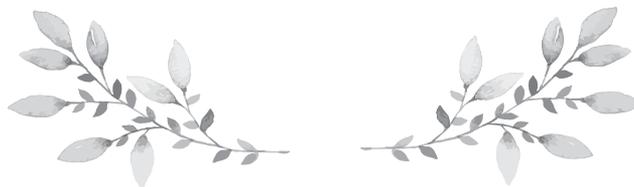




#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1. 6월 5일 월요일에 Brea에 위치한 New York Life 사무실에서 에이전트들의 사회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Volunteer For Good 프로그램에서 주시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영유아 무료발달선별검사에 NY Life Fullerton Office에 에이전트 10분이 오셔서 통역과 ID 제작 등의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2. 4주간 파일럿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Job Training의 목적으로 Yard Sale을 했습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였지만 손님을 맞이하고 흥정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7월 28일에 1박 2일로 샌디에고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발달 장애 자녀 13명과 가족들 그리고 스텝을 포함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엘에이에 살면서도 샌디에고 여행조차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가정들도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부모님들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사 13페이지)
4. 8월 6일 저녁에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St. Thomas 성당에서 Los Angeles Chamber Choir에서 우리 센터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아름답게 퍼져나간 선율과 화음들을 통해서 연주자뿐 아니라 연주회에 오신 모든 분이 맘속에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 18페이지)
5. 이번 학기에도 통합농구교실이 농심 아메리카의 후원으로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학부모님의 관심과 요청으로 이번 학기부터는 얼바인 교실도 열게 되었습니다.
6. 언어치료 선생님께서 새로 오셔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언어 지연이나 장애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7. Harmonia Music Program에서 핸드차임 앙상블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10월 21일 토요일에 LA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합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예약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9.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해주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우리 센터에 기부가 됩니다.
10. 우리 센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ec5629262040](http://www.facebook.com/kasec5629262040)) 센터 홈페이지 [www.facebook.com/kasecca](http://www.facebook.com/kasecca) 에 다양한 장애 정보와 관련 뉴스 그리고 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등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고 Like와 Share를 눌러 주셔서 좋은 정보들이 더 많은 분께 전달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겪는 십대들을 위한 수면 전략

ASD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삶 전반에 걸쳐 수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과 밤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잠들도록 돕는 습관을 잡아주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 습관과 일상

자녀의 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자녀에게 새로운 습관과 스케줄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떤 새로운 습관과 스케줄을 시도하고 싶은지 자신이 직접 이야기 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자녀의 일과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과 자녀가 선택한 전략들을 알고 함께 사용하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쉬워 뿐 아니라 효과도 좋습니다.

### 정기적인 스케줄

청소년 자녀들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낮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은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들 또한 청소년들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일어나면 블라인드/커튼을 열거나 불을 켭니다.
-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0-30분씩 3, 4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운동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취침 시간 가까이 운동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 매일 밖에 나가 햇볕을 쬐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시간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 낮잠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낮잠을 자게 되면, 오후 4시 전에 45분 이하로 자도록 합니다.

### 건강한 식습관

자녀가 무엇을, 언제 먹는지 또한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아침 식사를 같은 시간대에 해야 오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식사량이 많으면 적어도 잠자기 서너시간 전에는 먹도록 합니다.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특히 카페인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커피, 초콜릿, 차, 심지어 어떤 약들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와 과일 주스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후와 저녁 식사나 간식으로 안전한 메뉴입니다.

### 저녁 일상

활동하며 하루를 보낸 후 저녁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야 합니다. 즉, 흥미롭고 바쁜 활동은 서서히 줄이고 자녀를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차분하게 해주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숙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습관들이 자녀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긴장 풀기

- 커튼을 닫습니다.
-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 화면 끄기

- 취침 30분 전에는 텔레비전,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화면을 끕니다.

### 가벼운 스낵 먹기

- 열량이 많거나 매운 음식은 금합니다.

### 규칙적인 취침 습관

숙제나 일이 끝나고 바로 잠을 자는 것 보다는, 15-30분 가량 몸과 마음이 취침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순서로 같은 일을 하면 자녀의 신체에 취침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취침 전 일정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세수하기
2. 양치하기
3. 머리 빗기
4. 그림 그리기
5. 독서하기
6. 취침

매일 저녁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스케줄을 붙여놓으면, 자녀가 취침 전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정을 짤 때에는 자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쉬운 활동을 선택하셔야 하며, 활동 일정은 자녀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아야 합니다. 그림이나 체크리스트를 넣으면 자녀가 매일 밤 같은 순서로 취침 전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체크리스트는 자녀의 신체에 취침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지키면, 밤에 자녀가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취침 전 일정 체크리스트 예

1. 샤워하기
2. 잠옷 입기
3. 스낵 먹고 처방약 먹기
4. 화장실 다녀오고 손 씻기
5. 양치하기
6. 10분간 조용한 음악 듣기
7. 10분간 퍼즐하기
8. 취침

하지만 시각적인 일과표가 모든 자녀와 가족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시각적 스케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이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취침 전 일과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시각적 자료가 있는지 자녀와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편안한 수면 환경

자녀가 잠자는 공간을 최대한 차분하고 조용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자녀가 보다 쉽게 잠들 뿐 아니라 숙면을 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침대들이 침대를 숙제, TV 시청, 전화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이런 것들은 침대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침실을 아래와 같이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둡게 -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십시오 (필요하면 불빛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밤새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조용하게 - 방을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어떤 침대들은 다른 소리들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실링팬 소리와 같은 백색소음을 좋아합니다. 자녀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면, 라디오처럼 소리가 중간에 꺼지거나 바뀌는 것보다는 밤새 동일하게 유지되는 소리 (예: 선풍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 잠자는 공간이 밤새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자녀가 자는 동안 흐트러질 수 있는 물건이나 베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자녀가 밤새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 휴대전화, 테블릿이나 랩탑, 비디오 게임이나 텔레비전과 같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제거합니다.

시원하게 - 온도를 75도 이하로 낮춥니다.

편안하게 - 자녀가 선호하는 잠옷이나 이불을 줍니다.

### 침대 수면 연습

모든 침대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스케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밤에 원래 잠을 자던 시간에는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도록 변화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피곤하지 않은데도 잠을 억지로 자게 하거나 보다는 취침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여전히 9시간입니다. 또한 새로운, 더 늦은 취침 시간은 가족의 저녁 일과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 동일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매일 지켜야 하며, 주말에도 주중 스케줄과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자료를 이용하면 부모님과 자녀 모두 새로운 습관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잘 지키면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십시오:

- 자녀의 방 벽에 취침 전 일정을 붙여놓습니다. 그래픽, 사진, 만화, 간단한 단어들을 이용해 부모님과 자녀 모두 취침 전 일정의 단계와 순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 자녀의 방 벽에 오전과 오후 일정 또한 붙여둡니다. 취침 전 일정과 마찬가지로 그래픽, 사진, 만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 일정의 단계와 순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 [www.autismspeaks.org](http://www.autismspeaks.org)에 가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Toolkits 섹션에 가시어 Visual Support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를 찾아보세요.
- 자녀가 새로운 일과를 잘 지킬 때 줄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특별한 아침 식사, 가족과의 산책, 쇼핑물 가기, 아니면 자녀가 즐기는 것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자녀가 더 오랜 시간동안 일과를 지킬 수 있도록 더 큰 보상을 자녀와 함께 정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자료에 드린 제안들이 효과가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침대들의 수면 문제에는 약물, 불안감, 발작, 코골이, 몽유병, 발작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다른 염려사항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Autism Speaks



##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 용어들

자녀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교육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IEP 미팅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 때문에 난감하지는 않으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슬쩍 넘어간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막상 알고 나면 별 거 아닌 용어들인데 알기 전에는 생소함에 괜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이나 다른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보다 정확하고 자신감 있는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빈번히 사용되는 교육 용어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 Accommodations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바를 바꾸지는 않지만, 학생이 배우거나 시험 보는 방식(how)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보는 장소나 시험 시간, 내용 제시 형태, 응답 형태 등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 ❖ Modifications

Accommodations와는 달리 학생이 무엇(what)을 배우느냐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래에 비해 뒤쳐지는 학생에게는 보다 쉬운 과제를 주거나 난이도가 낮은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 ❖ Assistive Technology

장애가 있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보조 도구를 뜻합니다.

### ❖ Articulation

소리나 단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음 장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소리 생략, 소리 왜곡 (예: 혀 짧은 말), 특정 소리를 다른 소리로 대치하는 현상 (예: teeth를 teef로), 소리를 추가하는 현상 (예: running을 runnering으로) 등

### ❖ Decode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단어를 인식해 말로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 Encode

기호나 단어를 사용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를 들어 스펠링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 ❖ Receptive Language

다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수용 언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 ❖ Expressive Language

말이나 글, 동작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언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 ❖ Fine Motor Skill

글씨 쓰기, 타이핑 하기 등 소근육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 ❖ Gross Motor Skill

걷기, 뛰기, 뒹뒹기 등 대근육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 ❖ Inclusive education / Inclusion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적절하고 의미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Mainstreaming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것을 말합니다.

### ❖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공공 비용을 이용해 무상으로, 주 교육기준에 맞추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최저 제한 환경”

장애가 있는 학생을 장애가 없는 학생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함께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학급에서 보조 도구나 서비스를 이용해도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특수 학급이나 특수 학교로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출처: Vaughn, S., & Bos, C. S., & Schumm, J. S. (2013). Teaching Students Who Are Exceptional, Diverse, and at Risk in the General Education Classroom (6th ed.)

## 초기 언어치료의 중요성



### 어떤 나이도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을 늦게 시작했나요? 자녀가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질문에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나요? 자녀가 특정한 소리를 발음하기 어려워하나요? 자녀가 또래보다 말이 늦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이 질문들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언어치료사(Speech-Language Pathologist)에게 연락해 자녀의 언어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어치료사를 만나 언어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검사를 해보는데 너무 이른 나이는 없습니다.

### “지켜보자”는 접근

사회성, 놀이 기술, 소근육/대근육 운동 기술 등의 다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걱정하지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자녀가 언어 지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며 “그냥 지켜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언어치료사는 특정 나이까지 아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이것은 우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예방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표현 언어 영역에서 지연이 있는 경우에만 70-80%의 말이 늦은 아동들이 언어 지연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20-30%에 달하는 상당한 비율의 아동들이 또래의 언어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이 언어 기술을 제 나이에 습득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언어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 지연이 있는 아동들 중 누가 또래의 언어 발달을 따라잡을 것이고, 누가 그러지 못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The Hanen Centre의 이사인 Elaine Weitzman 언어치료사는 언어 발달에 있어 “지켜보자”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예방 치료를 지연하는 것은 아동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치료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 빨리 치료해야 하는 이유들

조기 치료는 아동을 위한 “치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위한 교육, 지원, 지침 또한 제공합니다. 조기 치료는 자녀의 발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두뇌 발달

어린 아이들의 언어 능력의 대부분은 인생의 첫 3년 동안 발달합니다. 이 시간동안, 언어 학습은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영아와 어린 아동들의 계속 발달하고 있는 두뇌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두뇌 발달 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 2. 제거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언어 지연을 보이는 아동들 중에는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서서히 이루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늦는 현상”의 원인은 알기가 어렵고, 발달의 과정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언어치료를 받으면 많은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학교 시작 전에 또래들의 언어 발달을 따라잡게 됩니다. 조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어치료사가 검사와 조기 치료를 통해 조음 장애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 3. 개선

치료에는 자녀와의 놀이와 하루 일과 중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의사소통 지연을 겪는 어린 아이들의 언어 치료에서 기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자가 되면 아동들이 성인이나 또래와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좌절감과 부정적인 행동들은 감소하게 됩니다.

### 4. 보완 전략

이것은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보상 전략을 가르쳐 주면 아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좌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그림”이나 “간단한 신호”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지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전략은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전략들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5. 부모의 중대한 역할

조기 치료를 하는 동안, 부모님들은 자녀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언어 조기 치료에 있어,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이 치료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언어의 본보기를 매일 부모님이나 양육자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부모님들께서는 매우 중요한 초기 언어 학습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놀이, 책 읽기, 식사시간, 목욕 시간 등 하루 일과 중 자녀의 언어발달이 촉진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정확한 조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단서나 피드백을 주는 전략들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자: Carrie Rosler (Speech-Language Pathologist) BENEFITS OF TACKLING SPEECH AND LANGUAGE DELAYS EARLY ON



## ‘I’m Here’ 나도 여기 있어요!



새로운 곳을 찾아가거나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여행은 언제 어디로 가든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낯설고 다른 세계의 단어로 여겨지게 됩니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누구든 상관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장애인에게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걷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잘하던 일에 놀라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어떤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매일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주위에서 장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혹은 장애 자녀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걱정에서 어딘가로 떠나는 걸 힘들어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함께 떠나기에 살짝 그런 걱정을 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모두 들뜬 마음으로 모여들고, 함께 갈 수 없어서 아이와 엄마를 보내는



아빠들의 잘 다녀올까 하는 불안한 모습을 뒤로하고 40명의 인원은 삼호관광에서 준비해주신 대형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샌디에고 씨월드. 단체 사진도 찍고 장애인을 위한 패스도 받고 몇 가족씩 흠어져서 놀이기구도 타고 돌고래쇼도 보고 씨월드 관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며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주는 미국인들을 바라보며 과연 한국이라면 이런 티를 입고 함께 여행하는 우리를 어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은 잠시. 어느덧 우리 그룹에도 형, 동생, 언니, 동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언니들이 동생들을 챙겨가면서 혹시 어디 갈까 봐 손도 잡아주고 사진 찍는데 먼저 포즈도 잘 잡으라고 얘기도 해주며 생각지도 않았던 보살핌을 이 장애 학생들이 서로에게 해주는 걸 보면서 설마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을 하였습니다. 긴 시간 관광을 하고 하룻밤 머무는 호텔에서는 아이들은 수영장에 첨벙첨벙 신나게 수영을 즐기고 여기에서도 큰 형, 언니들이 아이들 튜브도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모인 어머니들은 서로 얘기도 나누고 걱정도 나누고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장애 자녀가 있다는 것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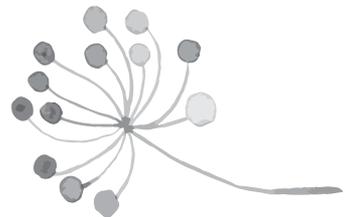


둘째 날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포트 빌리지 항구에서 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 배가 되어, 바다표범과 물개들과 함께 물 위에서 떠다니며 해안선을 샌디에고 시내를 바라보았고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머물러 있는 여러 척의 군함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수륙양용 버스 위에서 가이드와 함께 크게 노래도 부르고 춤을 따라 추기도 하였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 올라오는 길에 잠깐 들렀던 라호야 비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를 보고 가만있을 수 없었는지 무가 말릴 틈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부모님들은 큰 타올을 사 오시고 새 옷을 가져오시고 가운데 가족들의 맘이 느껴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피곤하지만 지난 1박 2일의 여행을 되돌아보며 매년 이런 여행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벌써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는 어머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의식과 편견들... 그 시선으로 인해 겪는 가족들의 상처를 바라보며 장애라는 이름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돼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행이 더 특별하지 않기를 위해 이를 위해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I’m Here’ 나도 여기 있어요.



Jenny

안녕하세요? Jenny Namkung and Hyun Namkung입니다.  
 "I am Here" 편은 Family 여행이 다져진  
 인사가 웃어넘어갈, 생생한 사진이 가득합니다.  
 귀요미입니다. 그리고 감사 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달달한 장미와 간사한 반강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은  
 다채로운 풍경과 공간입니다. 아직도 행복한 여인이 남아서  
 지내며 즐겁고, 행복합니다. 몸은 살면서 도약하는 존재  
 또 몸이 무서워 산티의 소꿉친구와 영장류와 Kuma 생생한 사진과  
 풍경까지 다채롭게 소개합니다. 산티와 함께 하는 여행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정말 귀여운 모습과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풍경입니다. Jenny는 아직도 산티의 선연함과 바깥에서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너무 귀여운 모습입니다.  
 귀요미 티 지어준 반강요와 영장류 무는 과정을 배우고. 느낌은  
 나는 귀요미 풍경은 너무나 귀여운 것 같아요. 귀요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참미하게 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 반기기엔  
 장미와 장미의 향이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니 아직도  
 느끼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귀요미 티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처럼의 여행이 "I am Here"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3년 7월 28일

Jenny 어머니

하늘을 우리러 모여

기다리던 7월 28일. 드디어 내눈앞에 왔습니다.  
 관망한 것밖에 희미한 느낌이 듭니다. 하늘은 잔잔히  
 푸르고 바람은 내뻗을 간지러웠습니다. 뒤늦게 비로써  
 모든 치사들과 함께 산티 샌디에고에 몸을 실은  
 즐거운 여행은 떠났습니다. San diego 가는 길은 무척  
 예뻐했습니다. 아치 잔잔한 호수 물가에서 여유로운  
 느낌. 먼저 도착한 곳은 Seafood 구역에 다들  
 음식이 있는 뷔페에서. 우연의 아주 깊은 중앙엔 두  
 기자와 훌륭한 대화를 합니다. 무척이나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주를 우리 편사들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공간까지 무척이 넓었습니다... 음식은 무척이나 맛있  
 습니다. Sea world 에 도착하여 놀이기구, 동물사육,  
 여러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아치 내 자신이 아치로  
 어린시절도 돌아간 것 같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도 웨라든 Hotel 에 묵으며 필립과 나는 반  
 에 나와 등장한 풍경, 어쨌지만 San diego 에 둘러,  
 신중을 하며, 가슴으로 느끼며, 천대에 잠들었습니다.  
 Hotel에서의 아침식사는 산뜻했고...

필립 할머니

수박스는 라리 폰게를 전기관  
 어 아주 크게 감동과 환희.  
 동영상을의 어머니들과 소통  
 습니다. 서로를 위로하여 긍정적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편사야행가요? 아무것도 없습니  
 다. Ma 선생님 모두 고마워  
 요.  
 기만 도움은 주신 아사님도  
 배려도 좋았습니다.  
 가 받은것은, 나의 모든  
 줄 더 가까이 내식구들,  
 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앞으로 우리의 천사들은  
 변으로 합니다.  
 했습니다.  
 다녀와서, Phil:p 할머니

## 1박 2일 샌디에고 여행을 다녀와서...

글 Michelle 어머니

지난 7월 28일과 29일 이틀동안 발달장애가족을 위해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1박 2일 샌디에고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카일 엄마로부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없을 거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말이나 연휴에 아이를 데리고 샌디에고에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신문사와 방송사에 광고할 예정이라고 하시며 예약을 받아 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번 여행에 동참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대와 설렘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앞둔 몇 일전부터 하수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속히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형부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부터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결심한 여행이라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사정을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형부와 언니가 일하러 집에 오시는 것을 보고,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낯익은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복잡한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여행을 가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샌디에고는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마흔 하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한약방을 찾아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샌디에고의 아름다운 바다를 한 번쯤 구경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이 담긴 한약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미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샌디에고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세라와 세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가끔 교회 사랑부에 세라가 올 때면 미셸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라는 미셸을 버스 옆 자리에 앉혀주고 미셸 옆에서 언니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안에서 미셸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세라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씨월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역시 돌고래쇼였습니다. 잘 훈련된 돌고래들의 멋진 묘기와 쇼를 보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갑자기 물세례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물벼락을 흠뻑 맞은 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모두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미셸은 이미 피곤해 있었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모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아이들은 수영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동그랗게 앉아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열시가 되어 수영장이 닫히면서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저도 제 방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의 화려한 외출이라 마음이 들떠서인지 깊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여행가방을 싸고,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 둘쨌 날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되는 신기한 체험도 놀라웠지만, 아름다운 라호야 비치에서 물개들이 사람들과 함께 헤엄치며 노는 것이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맹수와 어린 아이가 함께 뛰노는 천국이 연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피곤해서 잠들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오히려 정신이 말뚱말뚱 깨어있었습니다.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발달장애가족을 위해 이번 샌디에고 여행을 특별히 기획해 주신 한미특수교육센터와 아름다운 섬김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Noah Fund 덕분에, 모든 시름을 잊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미셸이 씨월드에서 어린이용 비행기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느라고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미셸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엄마의 판단대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감사했고, 엄마들도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샌디에고 여행을 통해 모든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과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샌디에고의 바다를 떠올릴 때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헌신적인 수고와 아낌없는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 LACC 자선 음악회



### 무엇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할까요?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모습을 봐야 우리는 행복해할까요?

천재라고 불리는 연주자와 유명한 대회에서 무수히 입상한 뛰어난 연주자들

그들의 음악을 듣고 보러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음악회 참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유명하지도 천재 한 명도 없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에 있었던 우리의 젊은 학생들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젊은 학생들을 장애인이라고 좀 불편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라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연주하였던 한 음악회에 참석한 관중들이 눈물을 쏟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음악회는 바로 8월 6일 애나하임에 위치한 성 토마스 성당에서 KASEC Harmonia Music Program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후원하며 응원하기 위한 Los Angeles Chamber Choir의 자선음악회였습니다.

실력과 유명세를 따지면 아무것도 없던 이 학생들을 위해 매년 디즈니 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정통 클래식 합창 음악으로 많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멋지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던 합창단이 자선음악회를 열어 주고 우리 아이들이 연주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센터 로고 색깔에 맞춰 무대 의상을 맞추고 자폐증을 상징하는 퍼즐의 의미를 살려 음악회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불편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하나 없이 아름다운 마음과 음악으로 어떠한 희생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열렸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레슨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장애인이라는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이 장애인 비장애이라는 구분을 깨고 함께 어울려 음악을 한다는 것이 즐거웠고 보람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학생들의 부모님도 또 가르치는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Harmonia Music Program을 만들고 기타 앙상블과 Chamber orchestra를 구성해 첫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작은 촛불이 큰불을 일으키듯이 이번 음악회를 통해 토마스 성당에서 퍼져나간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들 그리고 거기에 실린 따뜻한 마음의 울림이 멈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악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던지요... 직원인 줄 알았다는 장비를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이사님들, 조용히 나타나 모든 행사 일정을 뒤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던 Staff 들, 이 연주를 아름다운 성 토마스 성당에서 하게 해 주시고 음향장비며 무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조금의 불편도 없이 후원해 주신 교회 음악 감독 및 관계자분들, 우리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보러 와 주신 많은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저희는 또 열심히 나아갑니다.



# 후원해주신 분들

(2017년 6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 개인

Benjamin Song/Jennifer Song, Cecilia Paik, Christina B Kwon, David Won, Hyekyeung Seung, Injoa Kim, Isabella Jun Family, Jacob W Namkoong, Stella Gee, Jennifer Jung Kim, Lisa Yi, Sarah Woo, Sunmi Jung, Teresa Cho, Virginia Moon, 김소영, 김신규, 김명신, 김호정, 문선주, 방하섭, 박명숙, 박수정, 박지경, 변경주, 송해숙, 오민수, 육재민, 윤현경, 윤현숙, 이은영, 이진규, 장인숙, 한동휘, 한지영

## 교회 및 단체

Anaheim New Life Mission, Dough City Corporation, James Moon Accountancy, Nongshim Holdings USA, Transtar Transportation, Y.S Shin Foundation, 뉴저지 초대교회, 하심교회

8월 6일 Los Angeles Chamber Choir의 자선음악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안내

### 1. 온라인 후원방법

저희 Web site [www.kasecca.org](http://www.kasecca.org)의 Donate button을 누르시면 Credit Card나 Debit Card로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은행 및 계좌 information을 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OPEN BANK

Routing Number : 122043958

Account Number: 04200218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센터이름: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주소: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 3. 우편으로 Check를 보내주실 분들은 Payable to KASEC 로 쓰셔서 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4. Smile.amazon.com

Amazon으로 쇼핑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KASEC으로 기부됩니다.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골다공증



각종보험 / 메디케어

**진료 시간**  
월-금: 8:30AM~6PM  
토: 8:30AM~1: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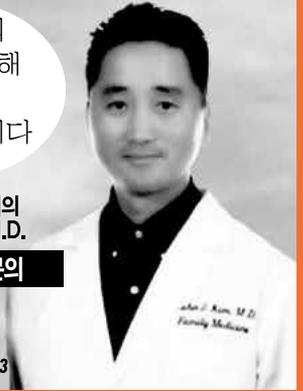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 LTL(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 53 ft Trailer & 26 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 (310) 534-0113

Mobile: (310) 800-8510

Fax: (310) 534-0116

E-mail: Transtar.inc@gmail.com

24328 S. 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 90710



**Gene (Seungjin) Seok, MBA**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Lic. #0H89595)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securitie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675 Placentia Ave, Suite 250, Brea, CA 92821

Bus. 714.255.7145 Cel. 949.232.0872 Fax. 714.255.5199

sseok@ft.newyorklife.com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1년 내내 고객을 1등회사!!!

# 삼호관광

213.427.5500

www.samhotour.com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ckim@sbcglobal.net



**Christina Kwon**  
Realtor®

Direct: (714) 504-6767

Office: (714) 451-1700

Fax: (714) 451-1720

christinakwon@socalbest.com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PARIS BAGUETTE**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INC.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323 730.5050 323.731.1313 323.383.3723 david@laservisionworld.com

**UAK DEVELOPMENT**

Entitlement	Feasibility Study
Development	Constructio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Structure Eng.	Civil Eng.
Traffic Control	Landscape Design

3660 Wilshire Bl. Ste.412 Los Angeles, CA 90010

**T (714) 504-7614 F (213) 279-2690**

**Sean S. Lee, LUTC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Insurance License #OH62773*



**Fraser Financial Grou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252-6209

Cell (562) 728-3808

Fax (213) 252-6299

seanlee@financialguide.com



Kyu Bum Han  
Lic. # 0B55520

**GLOPAX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surance & Financial Planning

7740 Painter Ave., Suite 206 Whittier, CA 90602

Phone: (562) 945-2670 Fax: (562) 945-2680

info@iglopax.com

#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 제니퍼 장 변호사는 따돌림, 정학, 퇴학같은 학교 생활 문제부터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사안까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교육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wang and  are family.



The Original Korean Brand

# Taste of Korea



##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in Special Educ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한규삼 (서울 충현교회 담임목사), 이경미 (AXA Financial Advisor), Bella Shim, 조제원 (가톨릭대학교 의생명 융합 연구원 부원장),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강승헌 (Wang Globalnet 대표), Roy Cho (Angeles Contractor, Inc. 마케팅 대표)

##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승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현선 박사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소아 발달 전문의)  
박규남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Lynwood School Distric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 Administrative Staff

### Planning & Public Relations Manager

Sam Yoon (B.A. in Church Music, Yonsei University)

### Administration Officer

Seon Young Ho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 Clinical Staff

### Developmental Disorder Evaluation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현 UCI Asst. Clinical Professor of Pediatrics)

###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ristina Cho (M.A. in Occupational Therapy, CSUDH)  
Sarah Minji Cha (SLP-A, M.S. in Speech Language Pathology anticipated Summer 2019, Biola University)

###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 Special Education Consult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 Harmonia Music Academy/Harmonia Chamber Orchestra

Seyon Park (D.M.A in Choral Music and Instrumental Conducting, USC)

### Clinical Program Coordinator

Yoon Sun Sung (Ed.M in Language and Literacy,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